

# 과부들의 축제

인생 그리고 사랑에 관한 웃고 울리는  
세 여자 이야기



미리내 소극장 개관 1주년 기념공연  
극단 아센 20회 정기공연  
부산시 문예진흥기금 선정작

## 나오인 사람들

“이제 그이는 없어. 내가 어쩔 수 있겠니? 음악이 흐르고, 남편은 그 곳에 없는데...”



### 구 민주 (아이다 역)

경성 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영화과 졸업  
중앙 배우 예술원 연기 강사  
제16회 부산 연극제 최우수 여자 연기상 수상  
극단 아센 창단 단원  
아센 연기 센터 교육 프로그래머  
제19회 부산 연극제 우수여자 연기상 수상  
現 소극장 미리내 대표

〈영순아 어디가니〉 〈언덕을 넘어서가자〉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러브러브 베베〉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 〈웨딩드레스〉  
〈그 여자이름은 이순례〉 〈이혼의 조건〉 〈날 보러와요〉  
〈물이어 불이어 바람이어〉 〈돌아서서 떠나라〉 〈메카로 가는 길〉  
〈오메가 햄릿〉 〈불 좀 꺼주세요〉 〈묘지 클럽〉 〈양파〉  
〈홍도야 울지마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마담M의 초상〉 〈여보세요 누구세요〉 등 출연

“난 다른 남자에겐 줄게 없어 그이에게 다 줘버렸으니까...”



### 김 희지 (도리스 역)

동서 대학교  
극단 아센 단원

〈러브러브 베베〉 〈로망스2〉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도불유희〉 〈아비가일의 파티〉  
〈Love is〉 〈장미를 삼키다〉 등 출연

〈배비장전〉 〈여보세요 누구세요〉  
〈양파〉 〈웨딩드레스〉 〈영순아 어디가니〉  
〈언덕을 넘어서가자〉 등 조명 및 음향 담당

“난 누구에게도 측은하게 보이기 싫었어... 절대로...”

### 황 자미 (루실 역)

동서 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극과 졸업

〈마술가게〉 〈약속〉 〈양파〉 〈아비가일의 파티〉  
〈사람의 아들〉 〈장미를 삼키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결혼〉 〈불좀꺼주세요〉 〈침입자〉 〈살인교향곡〉 등 출연



“난 내 인생에서 한 여자를 잃었소.  
어찌해 볼 수도 없이 말이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당신마저 잃고 싶지는 않소...”

### 호 민 (샘 역)

국풍 '81 전국 대학 연극제' 신인 남자 연기수상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영화과 졸업

아센 연극 스튜디오 원장 / 현대 배우 예술원 원장

부산 시립극단 창단 단원

극단 아센 창단

제26회 부산 연극제 우수 남자연기상 수상

現,극단 아센대표/미리내 소극장 상임 연출

〈그 여자 이름은 이순례〉 〈이혼의 조건〉 〈물이어 불이어 바람이어〉

〈언덕을 넘어서 가자〉 〈돌아서서 떠나라〉 〈환타스틱/철부지들〉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밭줄〉 등 출연

〈영순아 어디가니〉 〈양파〉 〈여보세요 누구세요〉 〈마담M의 초상〉

〈묘지클럽〉 〈적과의 이중주〉 〈둘이서 셋이서 혼자서〉

〈아비가일의 파티〉 〈웨딩드레스〉 〈러브 러브 베베〉 등 연출



# 미리내 소극장 대표의 글



사는거? 거 머시라고...

아기가 태어나면 일년이 지나 돌잔치를 할 때 실타래, 연필, 공책, 지폐등을 잔치상에 나란히 올려놓고 어른들은 각자의 바람을 담고 숨죽이며 아기가 "어떤것을 집을까?.." 를 지켜본다.

이번달 20일이, 그러니까 8월20일이 미리내 소극장 1년이 되는 날이다.  
이제 한살. 갈길이 멀기에 이제 시작이라는 강렬한 느낌이 온 말초신경에 전달되기에..

미리내 소극장에게 우리는 어떤 바람을 지니고 무엇을 택하기를 바랄까  
재력, 문화권력, 자존심이 따로 따로이며 절대 하나밖에 고를 수 없다면  
과연 '미리내 소극장'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바래야하나...

극단만 할때와 극장을 운영하며 극단을 하는것과는 많이 다름을 배웠다.  
그리하여 작품성만을 고집할 수 없음을 안다.  
미리내 소극장에 보다 많은 관객들의 발길을 모으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단원들과 함께  
현실적 삶을 영위함에 무엇보다 물질적인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아~~ 아는게 많아졌다는게 괴롭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 할 것인가.

올해도 어김없이 매미는 저렇듯 처절하게 울어대고 있다.  
7일을 살기위해 7년을 애벌레인채 기다려야 한다는 저 매미가...  
7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어떤 본능으로 아는 것일까..  
하루먼저 깨어난 옆집 매미가 또 그 매미는 자기보다 하루 먼저 태어난 옆집 매미에게 들어 아는 것일까  
찰라 같은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자존심을 선택하겠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고민해야겠고  
그 노력과 고민을 때로는 팽개쳐 버리고 싶을때도 있겠지만 극단 아센의 미리내 소극장은  
자존심 있는 연극인으로 남기위해 하나밖에 몰랐던,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밖에 모를 단순한 놈들로  
살아가겠다. 홀로 살아남아 더러는 슬퍼질지라도...  
자존심을 지문처럼 지니고 살아가겠다.

사는거? 거 머시라고...

2008년 8월 미리내 소극장 대표 구민주

# 여친의 글

“人生은, 자신이 지닌 소중한 그 무언가에 얼마간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기나긴 여정”이라는 어느 시인의 시구가 문득 떠오르던 무덥던 여름 어느날, 작열하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보다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공연작품에 대한 이열치열의 강렬한 열정으로 이 여름을 녹이고 있는 극단 식구들을 보면서 여기 지금 이곳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을 사람의 내음을 맡았습니다. 극 공연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조우를 갖고싶다는 극단 아센의 열망은 그리하여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택한 작품 <과부들의 축제>를 통하여 지극히도 평범하지만 진저리치게 소중한 우리네들 일상속의 사람내음을 관객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랑, 죽음, 인생에 관한 평범한 일상속에 담긴 진지한 감동과 유쾌한 재치, 그리고 삶의 아이러니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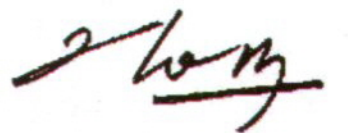
<과부들의 축제>라는 공연의 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람내움에 대한 그리움이 듬뿍 배어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 삶의 보편성을 익살과 재치와 진지함의 경탄할 만한 배합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연극 <과부들의 축제> 이 작품속에 등장하는 각자의 인생을 개성 있게 살아가는 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일상속에서 진지한 사람의 내음을 한껏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8월 극단 아센 대표

미리내 소극장 상임연출 호민



## 작품내용

20년을 함께 지내온 절친한 친구들이자 자신들의 남편과 사별한 공통점을 가진 세 여인.

천방지축으로 장난 삼아 연애하는 루실  
남편의 추억으로 민감한 보수성의 도리스  
현실을 수긍하면서도 새 삶을 기대하는 아이다

그녀들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매달 한번씩 아이다의 집에 모여서 유쾌한 시간들과 잡다한 수다로 작고한 남편들을 추억하면서 함께 남편들의 무덤을 찾는 일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반복되는 과정을 습관적으로 이어오던 세 여인들의 일상에 한 남자가 들어온다.

그들이 남편들의 묘지로 찾아갔을 때 마침 죽은 부인 묘소를 찾아 온 고기 집 주인인 샘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우정과 삶에 변화와 새로운 인생의 의미부여가 시작된다.

그녀들은 샘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목하면서도 인생의 경험이 있는 여자들답게 익살스럽고 현명하며 유쾌한 재치로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마침내 모든 오해와 반목이 끝나고 새로운 삶의 의미가 시작 될 때 그 행복의 끝자락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일이 일어나는데...

## 작품소개

연극 <과부들의 축제>는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이 이루어진 후 매년 무대에 꾸준히 올려지고 있는 품위 있는 블랙 코메디이다.

어느 평론가의 말 처럼 이 작품이 지닌 장점은

“일종의 익살맞고 지혜로운 인생 극”으로서 일상성에서 오는 재치와 유머가 돋보이는 것이며, 흔히 있는 일상의 주제를 가지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웃음으로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남편을 여윈 세 과부가 중심 축이 되어 이끌어 가는 이 작품은 그렇다고 굳이 여성극으로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상대적 성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내재한 사랑, 죽음, 인생이라는 보편성을 익살과 진지함의 경탄 할 만한 혼합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공감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공통분모를 반영하는 본 작품은 우리들의 숨겨져 온 일상의 웃음을 재치 있게 꼬집어냄과 동시에 은은한 감동으로 관객을 눈물짓게 할 것이다.

